

2021년도 제13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13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21. 10. 22(금) 14: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회의실

2021년도 제13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33작품으로, 초연부문 19작품, 재연부문 14작품이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9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10%)에 두었으며, 다양한 형태(작품성향, 구성 등)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악보(블라인드심사), 재연곡의 경우에는 제출한 영상 및 음원자료를 참고자료로 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 최종작품 선정을 위한 토론 심의를 진행하였다.

2021년도 ARKO한국창작음악제에는 전통음악 기반의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2020년에 비하여 전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작곡가의 전통에 대한 창의적 소화력에 아쉬운 마음이다. 전통음악의 선법이나 장단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통음악 자체를 편곡하거나 원곡 선율을 그대로 차용하는 등 전통음악의 힘에 편승하는 등 작곡가의 창의적 시각과 고유의 언어가 표출되지 않아 안타까웠다.

완성도 있고 개성있는 작품이 전반적으로 드물었고 관현악법이 미흡한 작품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타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효율적인 타악의 사용과 음악적 절제가 중요한과제로 느껴졌다. 전통적 요소의 사용이 다양하거나 참신하지 못하고, 서양음악과 적당히 결합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좀 더 확실한 한국음악의 정체성 안에서 다양한 자신의 판타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협주곡들이 많이 보였는데 양악기와 국악기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가 요망되었다. 악기 자체에 대한 탐구가 국제적 수준으로 이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정한 작품들은 전통적 어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작곡가의 주관이 뚜렷하게 반영된 것들이다. 관현악기법, 음향, 작품의 구조 등이 각 작품 내에서 창작의도를 잘 표현하고 있으며, 협연곡의 경우 협연자의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산한 작품이다.

제13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심의위원 일동